

2011년 가을호
제4권 제3호, 통권92호

Bodhisattva
보디사트바

여는 글	04	남께 가을노래와 복지갑을 선물로 드립니다. 능행
정토마을 특집	06	법화경천일기도 첫 회향 편집부
정토마을 초대석	08	호스피스협회 두돌잔치 윤원주
명법문·명강의	10	귀의심과 보리 심롭상룡독
내 마음의 경구	14	
순례기	15	조현의 라다크·잔스카르 순례기 조현
공덕의 향	17	아름다운 기부 편집부
경전 이야기	18	행복한 지기(知己)주의자 명재
만화로 만나는 트락	20	고장난 라이터, 일년치 거름 최영순
연호스님과 맑음의 채공이야기	22	매실액 담그기 맑음
의학이야기	24	암 두경우
임상의 숲	26	마지막 동행 형준
명상카툰	29	해바라기 용정운
보디사트바 향기	30	편집부
우리들의 이야기	32	33기 호스피스교육을 마치고 임미혜
	35	사랑하는 님이시여! 마니주
내마음의 시어	36	
정토마을 관자재회 소식	37	
언양 정토마을 자제병원	39	언양 정토마을 자제병원
청원 정토마을	40	청원 정토마을
후원안내	41	정토마을 (재)정토사관자재회
CPE교육안내	42	마하보디 CPE센터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 안내	43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호스피스교육안내	44	마하보디 교육원
보디사트바를 법보시하는 분들	45	정토마을 (재)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처 :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일 : 2011년 9월 7일 · 발행 · 편집인 : 능행 · 등록 : 울산바01004(2008.4.11.)
 · 기획위원 : 강옥희 최유 이길수 · 편집위원 : 김경오 김성규 박정선 상진 장용렬 · 사진 : 김종진 · 편집장 : 수필
 · 청원정토마을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 Tel : 043-298-2258
 · 언양정토마을자제병원 :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 Tel : 052-264-1007, 0117 / Fax : 052-264-0209
 · 기획 · 편집 : 아띠울 Tel : 052-264-0117 / Fax : 052-264-0209 · 제작 : 정토마을 (재)정토사관자재회
 · 디자인 : 가나인아트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5-12 남경빌딩 301호 Tel : 070-7569-0201

님께 가을노래와 복지갑을 선물로 드립니다.

능행 | 마하보디교육원 원장

불법승 삼보님전 귀의하오며...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었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속에 숨었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한 9월, 고현산 위를 유
유히 흐르는 구름을 보며 세월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후원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지요?

이곳은 정토마을 병원불사 쉬엄쉬엄 하라
고 비가 자주 옵니다. 빗속에서 구건물을 헐
어내고 웅벽토목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
다. 포크레인 소리와 태산같이 쌓아 놓은 흙
더미를 보니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병원 만

드는 일... 진짜 일이 많아요. 병원 잘 만들
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방문하
시어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코멘트해
주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정토마을은 '수행과 돌봄으로 하나된 행
복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의 중심에 있다면 당신과 나는 그 주

인공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께서 불치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동행이 되어 함께 해주시기에 참 힘이 됩니다.

요즘은 '시멘트 한 포대 참여하기' 불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더욱 따사롭게 데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많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켜서 즉시 실천하는 우리들의 선행이 나와 나의 가족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연의 도리를 숙연히 실천하는 정도마을 후원자이신 당신 안에서 흘러넘치는 자애심과 연민이 지금 언양 간월산 자락 자제병원 건립에 전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하시는 후원가족 여러분!

땅을 파고 건축을 시작하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1포대에 1만원이며 빨강 복지갑에는 시멘트 20포 권선문이, 파랑 복지갑에는 시멘트 50포 모연문이 담겨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권선문을 예쁜 지갑에 담아 보

내드릴 거예요. 한사람이 1포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벼들이 익어갈 것이며, 푸르른 나뭇잎도 갈색을 띄우며 어디론가 사라질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순간 세상과 하나로 공존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모든 것이기에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피는 가을 길을 걸어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하소서. ㅍ

언양 자제병원 건립 현장에서 능행 지심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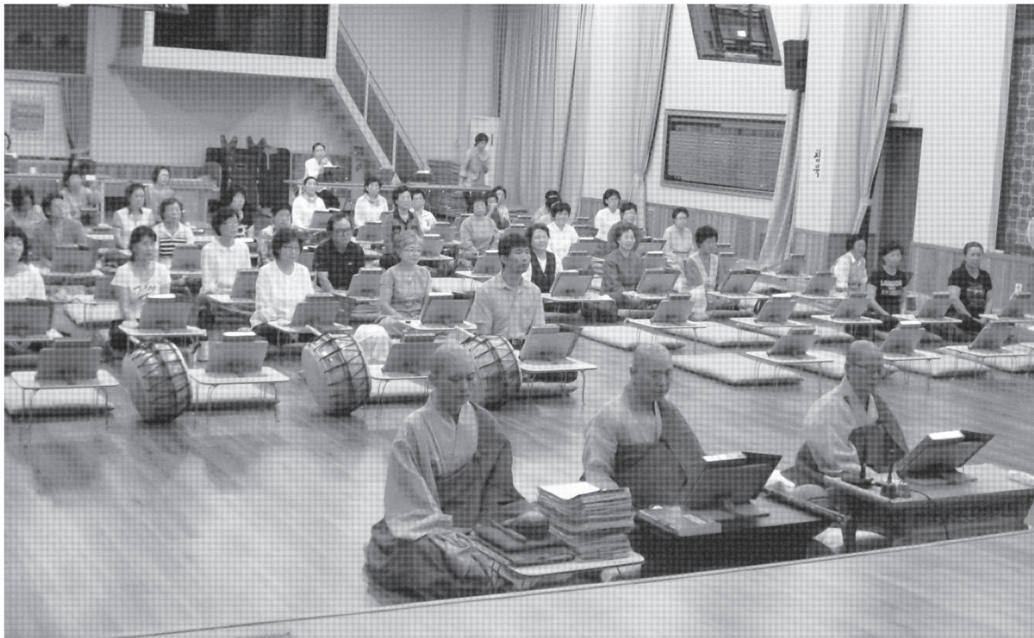


법화경 천일기도 첫 회향 법계를 장엄한 일백 열 두 송이 연꽃의 향기

편집부

2011년 8월 27일 마하보디교육원 대법당에는 천일기도 첫출발을 함께 시작한 일백 열두 분의 공덕이 하얀 연꽃으로 피어나 법계의 모든 부처님께 더할 수 없는 향기로 공양 올리게 되는 거룩한 첫 순간이 되었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자제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12일에 병상기부자들을 위한 '법화경 천일기도'를 입재하였는데, 2011년 8월 넷째주에 36개월 천일의 시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법화경 독송 전 교육원의 원장이신 능행 스님은 10여년 전 묘회스님을 통한 법화경의 첫 인연에 이어 도림스님과 법화경의 만남, 그리고 무비스님과 그의 한글번역본 법화경(기도집)의 탄생에 대한 회고를 하며 후원가족들에 대한 무량한 공덕에 감사함을 전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무엇이 인간과 자연의 파괴의 원인일까요? 세계 곳곳에서 삼재팔난이 일어나고 기근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는 지구촌의 실태는 분명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이 도처에 생겨나고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불치의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가뭄으로 오는 기근으로 죽어야하는 세상에 살게 되

는 것일까요? 특별히 자기 편리한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편한대로 행동하는 이기적인 삶은 자신의 청정한 의식과 지구 파괴를 가지고 오지 않나 성찰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유지하려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 모든 만물들과 서로 아끼고 도우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넘어 ‘시간은 생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빛같이 빠르게 흐르는 시간 앞에 매순간의 삶이 의미있고 충만한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10분의 스님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며 기도독송 후 후원가족분들의 선망부모님 천도의식과 더불어 ‘극락무’승무가 공연되어 기도회향의 분위기를 한껏 환희롭게 했다. 卍



한국불교 호스피스협회 두돌잔치

윤원주 | 한국불교 호스피스협회간사

2009년 10월 11일 호스피스 활동을 통하여 자비정신을 확산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탄생한 한국불교 호스피스협회(이하 협회)는 벌써 두 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숭고한 호스피스정신을 실천하는 호스피스회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충고에 힘입어 협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직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하여 국제네트워크 70여 국가에서 함께 기념하는 “세계 호스피스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9월 30일부터 암관리법이 시행되어 말기암환자와 가족이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다만, 호스피스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시선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완화의료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암 관리법을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후원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호스피스 정의

현대적 의료에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활동이며 환자 자신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며 또한 그들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총체적 돌봄

● 완화의료 정의

WTO : 환자 및 환자가족이 겪게 되는 통증, 신체적, 심리적, 영적문제에 대해 평가와 처치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행위

암관리법 제2조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모두 환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정의는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단어 선택에서 총체적 의료, 총체적 돌봄의 의미가 조금 다를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완화의료는 호스피스의 의료적 입장에서 표현이라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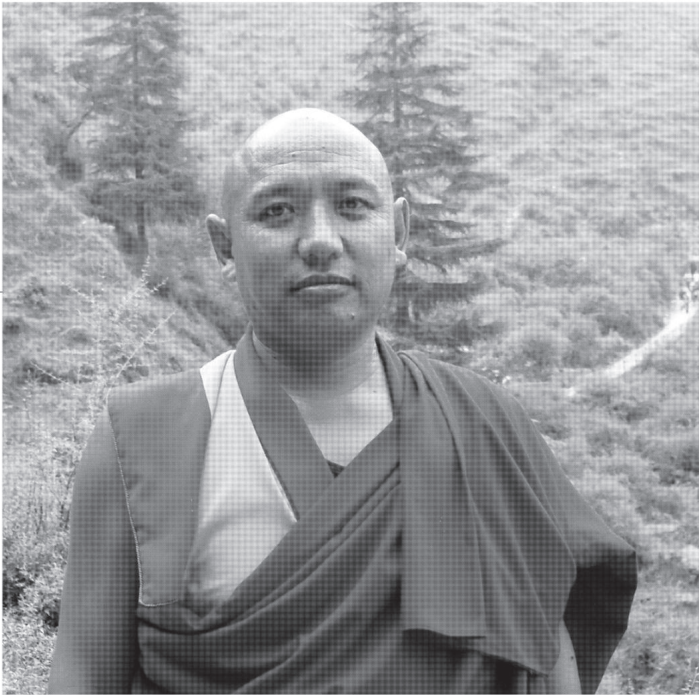
한국불교 호스피스협회는 불교적 사상과 교리에 입각하여 호스피스와 완화医료를 정

립하기 위하여 두돌맞게되는 10월 중순경에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2주년 기념 세미나에 오시어 축하와 용기를 한아름 주시길 청합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 창단 2주년 기념세미나의 주제는 “완화의료와 임상사례”입니다. 2011년 10월 19일 오후 12시 30분에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장소는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관 1층 대강당이고요. 이 잔치에 정모타을 후원자님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卍

귀의심과 보리심 I

롭상룡독 | 달라이라마존자의 직할학교
INSTITUTE OF BUDDHIST DIALECTICS 교수



佛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는 佛子와 非佛子の 경계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귀의심과 보리심이다. 귀의심과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했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되는 인연을 만드는데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사후 어디로 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재산도 담대함도 가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죽음의 길에 믿고 의지할 의지처가 필요하다. 삼악도에 떨어지고 난 후에는 고통을 그대로 받을 뿐 수행이나 의지처 같은 것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없다. 사람은 지체가 있고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처에 대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짐승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 때 우리를 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단언하건대 삼보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삼보가 어떻게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삼보에 대한 귀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귀의심이란 무엇인가? 또 귀의심을 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무엇이 귀의심을 불러일으키는가?

첫째, 귀의심이 싹트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윤회와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삼악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가? 삼악도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선업을 쌓게 된다. 죽음 자체는 나를 지옥으로 이끌지 못하지만 나의 죄업은 세세생생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삼악도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때는 너무 늦다. 삼악도와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을 때 비로소 구원해 줄 의지처를 찾는데 그 의지처는 삼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삼보에 대한 귀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귀의심의 두 번째 조건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아직도 윤회 속에 있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

해줄 삼보가 있다는 완벽한 신심은 그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윤회와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된다. 이것이 우리 마음 속 깊이 구축 되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2. 삼보를 생각하는 방법

불상은 불보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써 32호상(好相)과 80종호(種好)를 구축한 빛의 형상으로 떠올려야 하며, 60가지 음성의 공덕이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멀고 가깝고의 차이 없이 누가 언제 어느 언어로도 다 똑같이 들을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떠올려야 하며, 부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 생각해야 하며 일체 중생을 차별없이 두루 살피는 마음으로 떠올려

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불보에 귀의한다 함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3. 귀의심의 참다운 뜻

귀의심의 참다운 뜻은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 어디서나 삼보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이며,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안락할 때는 잊고 있다가 어려운 순간에서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안락할 때 역시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라는 생각을 잊지 않을 때 진정한 불자가 되고 불도가 된다.

4. 불자로서 금해야 할 세 가지

불도가 되고 안 되고는 선택의 자유이나 불도로서 입문을 했다면 또 다른 성취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불도의 규칙이 있다. 먼저, 온 마음을 다 바쳐 불보에 귀의하되, 일반 다른 세속 신들에게 귀의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선 구원을 바랄 수 없다. 오직 부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신 분으로 모든 유정과 무정을 구할 방안을 두루 갖춘 대자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보에 귀의하면서 반드시 지

켜야 할 것은 모든 유정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법보에 대한 귀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승보에 귀의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삼보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나쁜 도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도반과 함께 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5. 귀의심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먼저 탕화나 불상 등을 볼 때는 불보로 인식하여 부처님이 이 곳에 머물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는 것 같은 귀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둘째, 부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일지라도 법보로 공경해야 하며 복사물이나 출판물조차 귀하게 대하여야 한다. 셋째, 승복의 한 조각을 보더라도 스님들을 보는 것처럼 공경해야 한다.

하루 3식과 3세침 시간마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면 하루 최소 여섯 번은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삼보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할 여섯 가지를 잘 수습하면서 귀의심을 잊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참다운 귀의

심은 어떤 악업도 소멸되며 바다와 같이 넓은 복을 짓게 되는 것이며 지옥 아귀 축생에 태어나지 않게 된다. 귀의심은 제행을 선업의 방향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귀의심이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행자의 첫 발자국과 같기 때문이다. 그 첫 발자국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발자국을 뚫 수가 있다.

다음은 보리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해탈을 바라는 마음이 깊이 일어날 때 아라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아라한의 지위를 증득한다하여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목적은 성취했을지라도 다른 이를 위한 뜻을 이룬 것은 아니다. 자신만 해탈하고 윤회에서 벗어났을 뿐 남을 위

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자식을 언덕위에서 편안히 앉아 바라보고 있는 행위와 같이 형편없는 것이다. 나만 성불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기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해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중생 구제를 위해 성불하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일곱 가지 인과법'과 '자타상호교환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의 근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卍

보리심은 다음 겨울호에 연재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녹취 | 편집부 기획위원 이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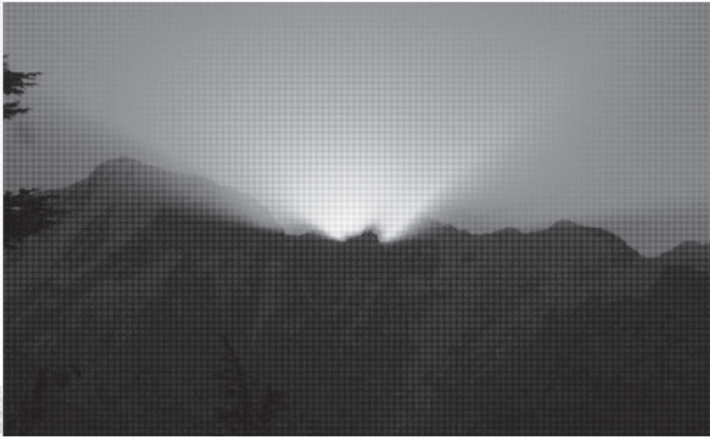


법의 소리를 불고 큰법의 복을 쳐서
모든 중생들을
높고 병들고 죽는 바다에서
해탈케 하리라

- 『묘법연화경』 약왕보살본사품 -

조현의 라다크 · 잔스카르 순례기

조 현 | 한겨레신문 종교명상전문기자 (cho@hani.co.kr)



차 한대를 빌려 타고 레콩피오로 향하는 길 역시 아슬아슬한 절벽 길이었지만 그 동안 풀 한 포기 없는 스피티 지역만 봐온 때문인지 계곡 옆의 나무들과 풀, 꽃의 어울림이 무지갯빛처럼 다가왔다. 레콩피오에 도착하니 벌써 어두워졌다. 힌두교의 성산인 카일라쉬는 티베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키노르 카일라쉬의 장관이 어스름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얻어 탄 차는 여섯 명이 타기엔 턱없이 좁았다. 난 짐과 함께 뚜껑이 없는

짐칸에 탔다. 설산 카일라쉬의 찬바람이 소매 깃을 타고 고스란히 내장까지 파고들었다. 밤바람을 헤치고 칼파로 향했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인 시바 신의 겨울 집으로 불리는 곳이 칼파다. 키노르 카일라쉬가 한 눈에 들어온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카일라쉬의 장관만 눈이 부신 게 아니다. 검정 돌지붕과 나무로 이어진 집들이 고풍스런 마을과 사과밭이 어우러진 칼파 마을은 이상향인 샹그릴라를 연상케 한다. 히마찰 오지를 다니며 한 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곳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었다. 마루에서 낮잠이라도 자다 잘못 뒤척이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법하게 위태위태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넓은 세상을 두고 이런 곳에서 살아갈까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리 이곳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위험스러워 보인 때문이었다. 칼과 뒷산 언덕에 올라가면 티베트의 파고다라는 초르텐 뒤로부터 완전한 파노라마를 만끽할 수 있다. 가파른 뒷산으로 올랐다. 오르면 오를수록 건너편 6050m의 키노르 카일라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인다. 수풀을 헤치고 오솔길을 지나 언덕에 올랐다. 그런데 조그만 계단식 과수원들이 있었다. 사과나무밭에서 양 세 마리가 여유를 즐기며 흘긋 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냐는 표정이다.

그 옆엔 조그만 외딴 흙집이 있었다. 입구 쪽엔 마른 풀과 장작들이 쌓여 있었다. 오



두막 안을 보니 60대 가량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나무로 불을 때고 있었다. 바닥도 천장도 벽도 흙인 이곳은 부엌이자 방인 듯 한 권엔 흙침대가 있었다. 놀란 기색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미소만 흘렸다. 인걸은 지렁이라던가. 그의 얼굴이 키노르 카일라쉬를 닮았다. 그렇게 30분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왜 왔느냐, 무엇하러 앉아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는 궁금증 같은 것도 없어 보인다. 빨감으로 불을 때 물을 끓이더니 짜이를 만든다. 여인이 주는 짜이맛은 히말라야 맛이였다. 여전히 말은 없었다.

여인의 침묵이 내가 히말라야 오지에서 수백번도 더 물었던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다. 자신이 이미 히말라야가 된 사람은 히말라야를 정복하지도, 히말라야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ㅍ

고귀한 보살행을 수희찬탄합니다.

편집부

두 분 부부는 목욕탕을 운영하시면서 오랜 세월 조금씩 저축하여 모은 소중한 자산으로 집을 지으면서 '이집을 팔아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라는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칠십을 바라보시는 두 부부는 불교인으로서 검소한 삶으로 열심히 정진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은 언양자제병원 기공식에 오셔서 자제병원 건립과 운영에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인 4층 10가구 다세대 주택을 기부

하여 주셨습니다. 고귀한 보살행을 수희 찬탄합니다.

기부하신 주택이 병든 이들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분께 정토마을 후원자들과 운영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은 드러남 없는 행을 원하셔서 익명으로 공덕의 향기만 전합니다.) 卍

행복한 지기(知己)주의자

명 재 | 정안사 불교문화대학 원장 (mithrasun@naver.com)

하늘로 지나가는 계절은 이미 가을로 들어선 지금도 여름의 짙은 푸르름은 여물져 있다. 살다보면 감당하기 힘겨운 일감보다,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에 먼저 지쳐 버릴 때가 있다.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지혜롭고자 우리는 다양한 종교, 책, 심리치료법[미술, 음악, 게슈탈트, 최면, 원네스 디샤 등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기도 한다.

한번쯤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을 부처님의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와 내면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삶의 지혜를 너무도 당연시 했을 뿐,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지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기존의 심리치료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결국 ‘자아(自我)’를 찾는 데 있다.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몸과 마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순간 자신과 화해하면서 자신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종교에서 이루어

지는 기도, 명상 등도 중국엔 자신과 올바르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자기 스스로의 감정,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잘 살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삶으로부터 일어나는 [외부로부터 빚어졌다]고 착각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껏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헤매었던 것은 아닐까?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기원정사에서 머무실 때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다른 사람의 마음의 작용을 아는데 능숙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의 작용을 아는데는 능숙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작용을 아는데 능숙하게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장식을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 또는 젊은이들이 깨끗한 거울이나 깨끗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보고 흠이나 얼룩을 보면 그것을 지우기 위하

여 애쓰게 된다. 만일 흠이나 얼룩이 없으면 기쁘고 만족하여 '아, 좋아라,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훌륭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우 도움이 된다.

- '나는 탐욕스러운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마음이 들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의심을 잘 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화를 잘 내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나쁜 생각에 쉽게 물드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 나는 게으른가 아니면 활력이 넘치는가?
- 나는 주의 집중에 머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만일 이와 같은 성찰에서 자신이 탐욕스럽고, 악의가 있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들떠 있고, 의심을 잘하고, 화를 잘내고, 나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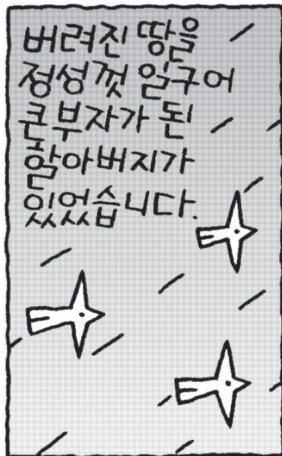
생각에 쉽게 물들고, 주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런 이롭지 못하고 악한 성향들을 버리기 위하여 마음챙김[사띠 sati, 염念 :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시하고 자각하는 수행법]에 머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최선의 열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 분발하여야 한다.

마치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마음챙김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열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들도 이롭지 못하고 악한 성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음챙김에 머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최선의 열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 분발하여야 한다.”

이처럼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다. 진정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꽃은 한탄의 화살, 원망의 화살, 비난의 화살, 슬픔의 화살을 미련없이 뽑아버려야 한다. 시나브로 깊어질 가을에는 자신을 등불삼아 행복한 지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여행을 떠나 보자. 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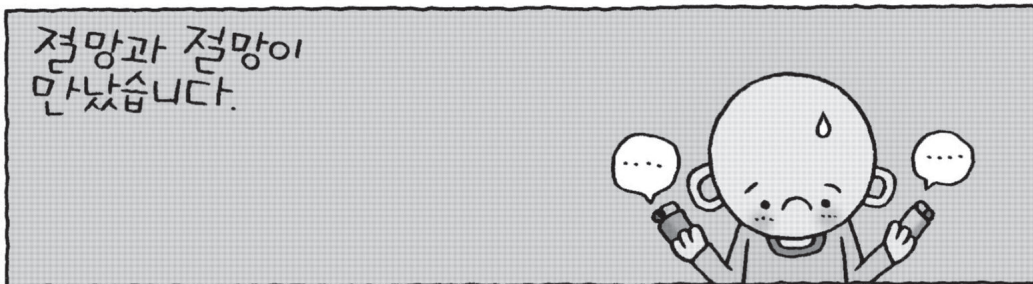
· 일년치 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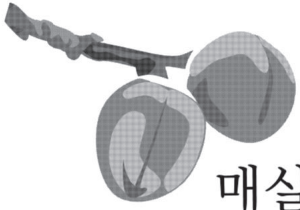
최영순 | 만화가



최영순 _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억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들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덩굴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 고장난 라이터





매실액 담그기

맑음 | 마하보디교육원 원주보살

안녕하세요? 마하보디 교육원의 원주 소임을 맡게 된 맑음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요. 제가 맡은 미션은요. 이제부터 ‘연호스님의 음식비법을 만 천하에 공개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연호스님의 음식솜씨에 대해서요. 후~ 제가요. 이제부터 연호스님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구요. 이번 호부터 저희의 채공 이야기를 꼭 기다려주세요.

연호스님께 전수받은 첫번째 이야기는 ‘매실액 담그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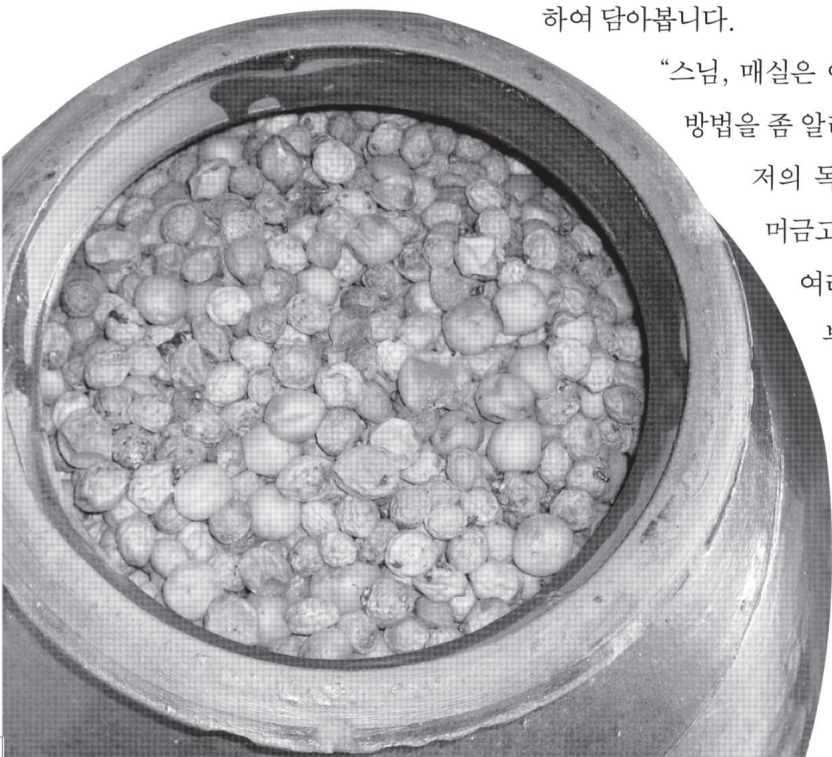
“매년 6월이면 시장엔 청매실이 많이 나와 있어요. 6월엔 매실 담그는 일을 꼭 잊지마세요.” 이런 연호스님의 당부가 있었답니다. 저는 원주노트에 꼼꼼히 메모를 해 봅니다.

교육원에서 수확한 매실과 연호스님께서 시장에서 사오신 매실을 합하여 담아봅니다.

“스님, 매실은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매실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의 독특한 애교에 스님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매실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께도 살짝 알려 드릴테니 자 지금부터 밑줄 그을 준비를 하시죠.

매실은 6월~7월 초순에 나오는 매실이 가장 좋구요. 알은 큰걸로



사용하며 청매는 파랗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실을 잘
선별하여 흐르는 물에 24시간 담귀 두면
꼭지에 있는 독이 빠진다고 합니다.

연호스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종일 담
귀놓았다가 막상 매실을 건질려고 보니
색이 좀 변해 있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스님께 여쭙었지요.

스님께서서는 “담귀두다 보면 그렇게 된
다.”며 괜찮다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담아 볼까요~^^

1. 매실을 24시간 흐르는 물에 담귀
두었다 건져서 물기를 제거한다.
2. 준비해둔 항아리에 매실1:설탕1 비율로 담아본다.
(매실몸통은 구연산이 많아 플라스틱성분을 녹일 수 있
으므로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아야 인체 해가 없다.)
3. 항아리 입구를 한지로 씌우고 그 위로 망을 씌워준다.
4. 보통 20일후 쯤 지나면 가라앉아 있는 설탕을 잘 저어서
녹인다.
5. 그리고 40~50일 지나면 열매를 건져내고 원액은 그대
로 봉해서 1년 넘게 숙성을 시키면 매실액 제 맛이 난다.

이것으로 매실액 담그기 끝~~

처음으로 담귀 봤는데 내년이 기다려집니다 ㅋㅋ

이렇게 매실액을 담아 두었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매실 장아
찌입니다. 이번에 못해서 우리 연호스님께서서는 생각날 때마다 이
야기 하시네여... 내년엔 꼭 담아야죠.



연호스님은 “음식은 약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모든 분이 드신 후 즐겁고 행복함을 느
껴야 한다고 ^^ 저는 아직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
지만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 알려드리구요.

우리 연호스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ㄸ

암 CANCER

두 경우 | 다르마요가원 원장

●●● 긴장으로 생긴 질병...답은 이완

먼저 암은 어느 부위에 발병한 것이든 긴장에 의한 질병입니다. 요새말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이란 것이지요. 긴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서적 긴장, 지적긴장, 근육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 묵어 의식의 내면에 쌓여있는 업력을 정서적 긴장이라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일 속에서 일어나는 긴장은 지적긴장, 그 긴장이 육체에 전달된 것이 근육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대부분의 질병이 이 긴장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암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은 긴장과 이완에 의해 조절되는데, 긴장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이완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두 신경의 줄다리기를 통해 모든 장기들이 조절됩니다. 가령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간 심장 폐 등은 더 자극되어 활동이 빨라집니다. 역으로 위나 췌장 등은 느슨해져 활동을 멈춥니다. 스트레스성 비만이나 당뇨도 이런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시스템을 담당하는 백혈구 내에는 과립구가 60%, 림프구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면 과립구의 수치가, 이완을 하면 림프구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립구는 입자가 큰 세균을 제거하고 림프구는 바이러스나 암세포 등을 처리합니다. 또한 과립구는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림프구는 하루에 백만개 정도의 암세포를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35%의 수치를 유지한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립구의 수치는 올라가고 림프구 수치는 떨어지고 더

많은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처리능력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답은 이완이겠지요. 즉, 기도를 하거나 명상
을 하거나, 적극적인 이완 기법을 익히거나, 아니면 코미디 프
로를 즐겨보거나 무엇이든 이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지압이나 마사지 등 근육의 이
완을 통해 정서적, 지적 이완을 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러나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은 모두 긴장을 부르는
방법이니 적절한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치료
를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이완요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투
쟁적, 강압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암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보 도우루의 면역혁명을 참조하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 동행

형 준 | 정도마을 자제병원 승가공동체 총무

봉화로 가는 차 안에서 원장스님이 조용히 말씀을 꺼내신다.

“스님께서서는 참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간 시간이 두어 달 전으로 뒷걸음치고 있었다.

교육원 사무실에 들어서자 별리대리가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스님, 어떤 스님께서 원장스님과 통화를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요? 무슨 일 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쪽지를 원장스님에게 건넸고 오후에 원장스님은 대구에 간다고 나가셨다 돌아오신 후 말씀하셨다.

“스님 한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긴 계실만한 방이 없고.....”

“그럼 가까운 병원은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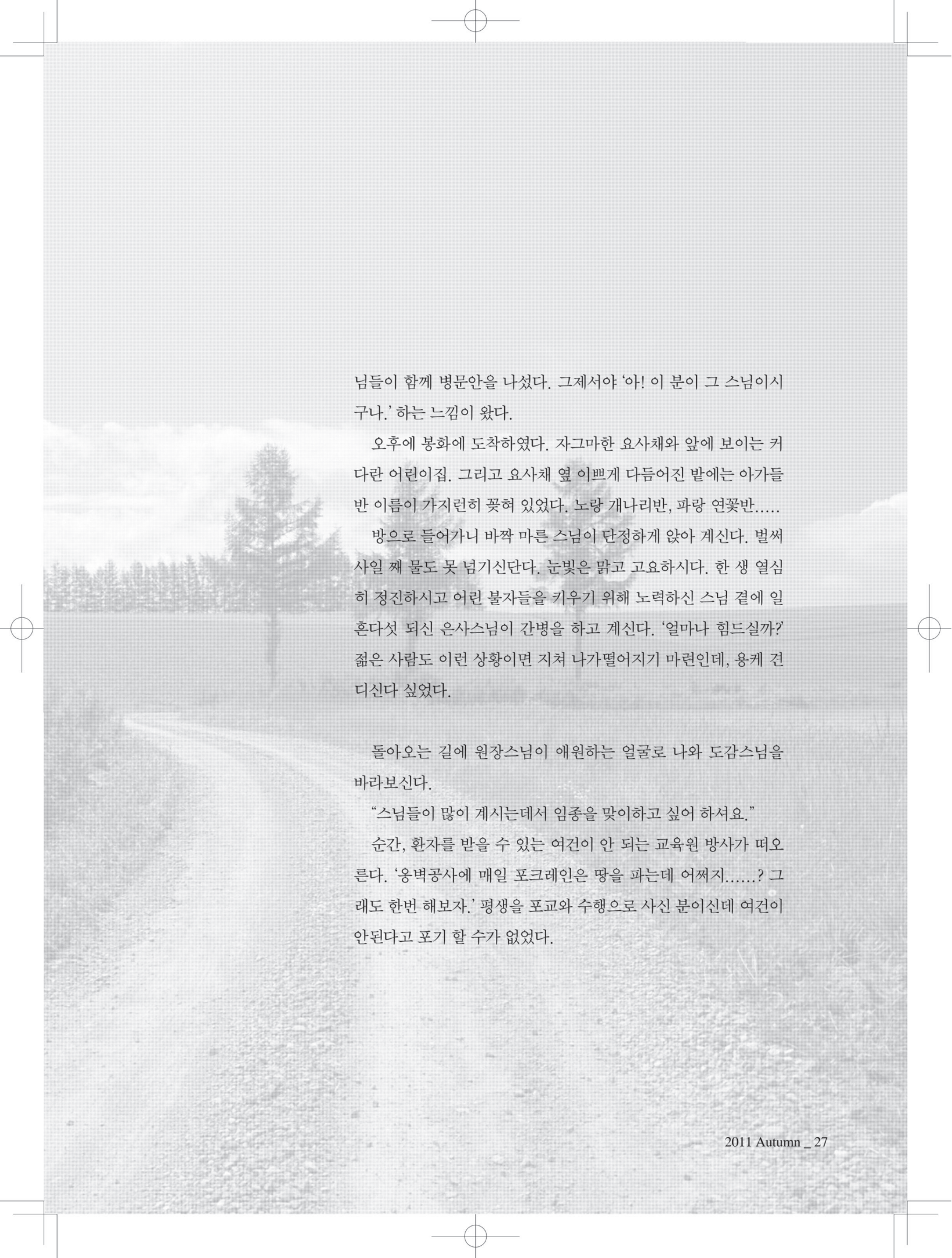
“병원에는 링거 꽂는다고 싫다시네요. 생명 연장시킨다고...”

“주변 정리는 다 하셨습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에...”

그리고 한참 지난 것 같다. 어느 날 원장스님이 봉화를 가야 한다고, 스님 한분이 아프시다고 서두르셨다. 다음 날 새벽에 대중스



님들이 함께 병문안을 나셨다. 그제서야 ‘아! 이 분이 그 스님이시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오후에 봉화에 도착하였다. 자그마한 요사채와 앞에 보이는 커다란 어린이집. 그리고 요사채 옆 이쁘게 다듬어진 밭에는 아가들 반 이름이 가지런히 꽃혀 있었다. 노랑 개나리반, 파랑 연꽃반.....

방으로 들어가니 바짝 마른 스님이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벌써 사일 째 물도 못 넘기신단다. 눈빛은 맑고 고요하시다. 한 생 열심히 정진하시고 어린 불자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신 스님 곁에 일흔다섯 되신 은사스님이 간병을 하고 계신다. ‘얼마나 힘드실까? 젊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면 지쳐 나가떨어지기 마련인데, 용케 견디신다 싶었다.

돌아오는 길에 원장스님이 애원하는 얼굴로 나와 도감스님을 바라보신다.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하세요.”

순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교육원 방사가 떠오른다. ‘옹벽공사에 매일 포크레인은 땅을 파는데 어찌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평생을 포교와 수행으로 사신 분이신데 여건이 안된다고 포기 할 수가 없었다.

마침 33기 호스피스 수료식이 있어서 봉사자들의 자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얇전하고 고요한 두 보살님이 각각 낮 밤을 나누어서 돌보기로 하였다. 보살님들은 미리 들어와서 스님을 맞을 채비를 하며 스님께실 방을 단도리 하였다.

드디어 스님은 언양으로 오셨다. 봉화에 서 여기가 어딘가? 싱싱한 사람도 지치는 길이다. 그렇잖아도 바짝 마른 얼굴에 눈이 더 쨍하다.

“스님 죄송해요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모셔서.....”

“괜찮아요. 자제병원이 지어지는데, 우리 불교도 호스피스 병원이 생기는데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첫 날 밤은 너무 힘들어 하셨다. 밤새 구역질을 해도 먹은 게 없으니 나올 것도 없다고 하시며...

“이렇게 죽는 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내가 죽어 가면서 옆에 사람들을 너무 귀찮고 못 살게 구네요. 너무 미안해요.”

“스님 그런 말씀 마세요. 태어날 때 돌봄이 필요하듯이 임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하다 배웠습니다. 다음 생을 건너가는 일대사 인테요. 태어날 때보다 두 세배의 섬세한 돌

봄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스님 곁에 있는 저 두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온 마음으로 스님과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스님의 눈빛이 편안해지시며 고개를 끄덕이신다.

“죽음에 가까이 와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겨우 눈을 조금 붙이셨다. 나중에 찾아보니 목욕 하신 후 행복해 하시며 방귀를 두 번이나 꾸었다고 입으로 방귀 소리를 흉내 내셔서 같이 한바탕 크게 웃었다. 다행이다. 스님이 편안해지셔서...

죽음 앞에서 당당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스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곳 언양의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고요히 앉아서 차 한 잔 즐길 시간도 없다. 마음에 ‘힘듦’의 망상이 슬슬 일어 날 무렵 스님이 오셔서 경책을 하시는 것 같다. 스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데 나는 많은 말씀을 듣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밤은 깊어가고 스님은 또 꼰딱 밤을 새우실 것이다. 저편 방에서

내일 아침도 스님의 맑은 눈빛을 뵈고 싶다. 卍



용 정 운 | 부다일리스트

주성대학교 하이닉스의
웃음과 사랑나눔

정도마을 환우님들
춤추고 노래하고...
삶의 힘과 사랑의 에너지가
잔디밭에
가득

그대들에겐 보디사트바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 1 임 미 혜 | 33기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고
- 2 마 니 주 | 사랑하는 남이시여



2011년 여름 33기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고

임 미 혜 | 33기 호스피스교육 수료생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바쁘게 살아가던 생활 속에서 뛰쳐나와 불교 호스피스 교육장으로 나아갔다. 입제식, 맨 처음 능행스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물어오셨다. 아주 오래만에 받는 교육이라 기대와 피곤함이 공존했지만 스님의 말씀은 7박 8일간의 긴 여정에 목적의식을 갖게 해 주셨다. 스님의 다음 말씀 또한 “그냥, 한번 해본다.”였다. 나는 그 말씀 후 ‘끝까지 가보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이 교육의 목적은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항상 내가 추구하는 삶이기에 반가웠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를 입속으로 되뇌었다.

여러 연령대와 생활환경과 사는 곳이 각각 다른 보살님들과 평소 만나뵙기 어렵던 비구스님들 비구니스님들, 처사님들까지 함께 자기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역할극도 함

게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아픈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느껴보기도 하고 상황과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내 마음의 이기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 특히 내 깊은 마음속에 자리했던 분노와 상처가 있었음을 처음 접해보았고, 소리높여 외치고 외쳐서 저 멀리로 던져버렸다. 함께한 춤과 노래 속에서 온몸이 전율하며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되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처사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삶의 질편한 이야기 속에서 나와 다르지 않은 그분들임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도 표현을 안 할 뿐, 마음의 아픔들은 모두들 조금씩 있다는 것. 그리고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던 스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친구가 된 듯한 의기는 뿌듯함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죽음을 목격한 순간도 없는 내가, '오늘 현재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상이지만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내가 갈 곳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정말 어디로 갈지 막막했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한 번도 생각이나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는 나였던 것이다. 죽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삶의 마지막 여정이자 축복이기도 하다는 넓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지금 이 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너와 내가 다름이 아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보기로 다짐하였다.

호스피스 교육을 즐겁게 웃으며 함께한 우리 33기 도반들... 13명이 한방에서 함께 자고 먹으며 기운을 나누며 살아본 것이 얼마만인가? 가슴을 활짝 열고 100% 흡수하기. 내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움을 느끼게 되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며 나를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들. 여러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나의 행동패턴도 발견했고 내가 부족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알게 되었다. 서로 서로가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소중한 도반들이며 선생님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바, 내 인생의 방향과 여정, 내가 좋아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을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금 이순간, 내 속에 깨어있고 아름다운 하늘과 세상과 우리 모두와 지금 현재의 시간이 있음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호스피스 교육은 아프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교육이었다. 내가 더 성숙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좋은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을 알려 주시고 교육해주신 능행스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자원 봉사자분들과 정말 가슴을 활짝 여는 아름다움의 공양을 맛있게 지어주신 32기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32기 선배님들, 실무자분들과 우리 교육생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모두 모두 늘 행복하소서. 卍

사랑하는 님이시여 -성오스님의 사십구제를 지내며-

마니주 | 정토미을 간호사

님이시여!
인연되어 머물다가
추억되어 떠나신지
사십구일
흐르는 눈물
염주알 삼아
한알 돌리며
'어찌살까'

님이시여!
전생은 몸고생
금생은 맘고생
내생은 극락왕생

지나는 한숨
염불 삼아
두손 모으며
'그리웁다'

사랑하는 님이시여!
님없는 병상홀로
님 기다리며
고요히 참선한지
사십구일
방선하며
내려놓은 말
'극락왕생하옵소서'

내 마음의 시어



붉게 피었다 질때는 말없이
뚝 떨어지는 꽃
낙화의 순간도
고운빛깔의 자존감을
잃지 않는 꽃
지면서도 울지않는
그러나
사실은 땅을 베고 누워 붉은 눈물
하염없이 땅을 적시는
그 꽃의 이름이
능소화입니다.

Bodhisattva's News



1. 자제병원 기공식 (5월 29일)

정토마을 정토사관자재회는 5월 29일 수불큰스님을 비롯해 제방의 선지식들을 모시고 자제병원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본 행사에는 정토마을 후원자분들과 안국선원의 신도님들 등 약 2천 5백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 롱상륜똥스님 초청 구사론 대강좌 (6월 2일 ~ 11일)

정토마을 정토사관자재회는 달라이라마 직할학교 "INSTITUTE OF BUDDHIST DIALECTICS"의 교수이신 롱상륜똥스님을 초청 구사론에 대한 대강좌를 10일동안 수학하였다. 운문사의 스님 1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수업으로 수행의 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3. 사무실 상량식 (7월 15일)

기공식에 앞서 정토마을 정토사 관자재회 법인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자광 큰스님을 모시고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상량식에는 공동체의 스님들과 사부대중 및 건물을 지을 건축가들이 함께하였다.



4. 33기 호스피스교육 (7월 24일 ~ 31일)

2011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7박8일의 여정동안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토대로 한 호스피스 교육이 있었다. 교육을 주관하는 아미타호스피스회는 붓다의 자비실천이 자기치유· 자기돌봄과 동시에 중생을 향해 나가는 자리이타여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교육에 임했다.



5. 감마(GAMMA)교육 (8월 8일 ~ 9일)

정토사 관자재회는 직원 연수교육으로 3회째 감마교육을 실시하였다. 감마교육을 통해 관자재회 공동체 사람들은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공동체'라는 슬로건과 더불어 '생명존중' '의식성장' '자비실천'이라는 실천덕목을 창출하는 수확을 이루어냈다.



6. 하안거 해제 (8월 14일)

7월 백중의 행사를 공동체스님들과 후원자 및 봉사자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과 함께 거행하였다. 총무스님의 백중절에 대한 간단한 법문이 병행되었다.



7. 33기 호스피스 수료식 (8월 21일)

33기 호스피스 교육과 정토마을 · 꽃동네의 임상실습을 수행한 교육생들이 8월 21일 '그동안의 여정에 대한 나눔'을 가진 후에 수료식을 하였다.



8. 호스피스 운영진 · 마스터 워크샵 (8월 21일~22일)

33기 호스피스교육을 마친 후 운영진과 마스터들이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1박2일의 워크샵을 가졌다. 이 워크샵은 우리 교육에 대한 신념세우기와 차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으로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돌봄의 마인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된 교육이었다.



9. 법화경 천일기도 첫 번째 회향 (8월 27일)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대법당에서 법화경 천일기도의 첫 번째 회향을 기리는 천도재와 축하공연이 있었다. 원장이신 능행스님은 회향 법문을 통해 36번의 법화경 전품 독송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공덕이 한량없음에 대해 찬탄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기도 회향 후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앞으로 매달 기도회향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완화의료전문 자제慈濟병원

자제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제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같이 베푸는 나눔!

전문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제병원은 한분한분의 소중한 참여로 건립됩니다.

건/립/후/원/계/좌

농협 : 401131-51-075952 국민은행 : 713701-01-140932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KTX 울산역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 자제병원 건립사무국

(689-8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 052-254-2340, 2341 Fax: 052-254-2347

<http://jungtoh.com> E-mail : jungtoh@cpebud.com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소재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3층 2,883㎡ (872평)
· 병상수 : 65병상(중환자실 제외) · 주요서비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재활, 외래, 가정간호, 의료봉사 등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 운영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입소심사→입소통보 및 입소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

 돌봄과 수행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정 토 마 을 호 스피 스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 / Fax:043-298-1457 / <http://jungtoh.com> / hospice@cpebud.com

후원 참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토마을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I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기금으로
- II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III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전화 한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저금통분양
- 후원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 후원계좌 : 농협 _ 401120-51-016794

국민은행 _ 713701-01-001909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돌봄과 수행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재)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043-298-2258 / Fax:043-298-1457 / http://jungto.com / jungto@cpebud.com

“ 임상전문상담 마음돌봄 치유사로 탄생되는 CPE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임상보디사트바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란?

병원 · 학교 · 가정 · 사찰 등 중생의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음돌봄가(보디사트바)를 키워내는
임상 전문 훈련 교육! 자신의 치유와 돌봄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교육!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 일정 안내

- 과 정 : 봄학기(3월~6월), 여름학기(6월~8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 간 : 16주간 · 모집인원 : 8명 (정원)
- 일 정 : 봄 · 가을학기 : 매주 일요일 / 여름학기 : 토 · 일요일
- 시 간 : 오전10시 ~ 오후 5시 30분
- 자 격 : 스님, 성직자, 의료인, 교사, 복지사, 임상상담과 치유에 관심있는 모든 분

배움과 성장 (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환경
경험	그룹동료와 Supervisor의 관계
성찰	사례연구 세미나
통찰	임상강의 / 관련 서적 읽고 연구
분석	가계도분석 세미나 신념체계 및 삶의 패턴양식 이해하기
실전 통합	리더쉽을 배움



돌봄과 수행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언양 정토마을 마하보디CPE센터

(689-823)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3층 CPE센터 Tel: 052-264-0117 · 052-264-0209 / <http://jungtoh.com> / <http://cpebud.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생/모/집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은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불교의 사상과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성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임상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전문 상담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불교의 교학과 현대심리학을 통합하는 불교심리학 이론의 체계화
- 명상수행과 심리상담의 접목을 통한 전문명상심리치유사 양성
-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수행과 교육을 통한 자아발견

» 입학안내

□ 지원자격

- ①지도자과정
 - 학사학위가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연한 및 시간

- 지도자과정-4학기 석사과정-5학기
- 매주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 학위 및 자격증 취득

- 지도자과정 이수시 본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위덕대학교지도자과정 수료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 교육협정에 의거한 석사학위 취득

□ 전형일정 · 제출서류와 입시상담문의

- 수시상담을 통해 입학 안내
- 전형서류 제출기간 : 12월 1일~ 12월 31일
- 전화 : 행정실 052)264-0180, 담당자 손전화 : 010-4924-6229, 010-7168-7142
- 홈페이지 : <http://www.mahacounseling.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장

호스피스 교육안내

since 1993

“호스피스의 대상은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기본 2기(불교임종의식)교육

- 교육기간 : 2011년 10월 4일(화) ~ 10월 7일 (금) (3박 4일, 32시간)
- 교육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2011년 현재 종단등록사찰주지스님
(승납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강좌 자유롭게 수강가능)
- 교육비 : 35만원 (국민은행: 713701-01-140961/정토사관자재회)
(법납 10년미만 및 학인스님, 본 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수료한 스님 5만원 할인)
- 접수마감 : 서류접수:2011년 9월 20일까지 교육비입금:2011년 9월 30일까지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4) 2매, 승려증사본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 본 교육은 스님들의 승려연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과정입니다.

34기 호스피스 교육 안내

- 교육기간 : 2012년 1월 8일(일) ~ 1월 14일 (토)
(6박 7일, 임상실습 50시간 제외)
- 교육대상 : 사부대중
- 교육정원 : 60명
- 교육비 : 65만원 (교재비 포함) (국민은행: 713701-01-140961/정토사관자재회)
- 접수마감 : 2011년 12월 23일(금)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4) 4매

※ 본 교육은 스님들의 경우, 승려연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과정입니다.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 접수 및 문의처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TEL : 052-264-1007, 0117 / FAX : 052-264-0209

☎ 함께하실 분은 바로 전화 주세요.

보디사트바는 정도마을 자제병원의 후원자들이 받아보시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이 책을 법보시하는 공덕을 나누실 분은 바로 전화주세요.

이 가을호에 함께 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법보시 동참계좌 농협 : 815039-51-046631 (예금주 아띠울)
- 법보시(보디사트바광고) 동참금 : · 전면:40만원 · 1/2크기:20만원 · 1/4크기:10만원
- 문의처 : 아띠울 출판사 TEL (052)264-0117 / FAX (052)264-0209

ONENESS *One Being, All Being*



ONENESS AWAKENING

원네스 깨어남의 코스

내면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자신의 현재 삶과 나아갈 방향을 알고 싶으신분
-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 분
- 의식의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2일간) 장소 | 연양 원네스의 집
문의 | 다정트레너 011-597-1180 / 난초트레이너 011-587-7969

자연과 건강이 숨쉬는 곳 **편백원**

<http://cafe.daum.net/oldhinoki>



- 편백(히노끼)암반욕
- 편백(히노끼)삼림욕
- 편백(히노끼)효소욕
- 각종 편백용품 및 자재



☎ 052) 262-10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50-4번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신불산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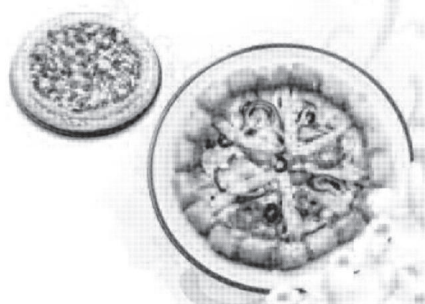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253번지 2층
Tel, 052) 263-0052

Since 1996년

샐리스피자

자연치즈 100%사용하는 우리집 대표피자

하나. 리치골드피자
둘. 치즈바이트피자
셋. 치즈크러스트피자



☎ 052) 264-9400 / 018-234-4849

www.dcake.co.kr 떡보의 하루는 100% 국산쌀을 사용합니다.



떡보의 하루

떡케익 떡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떡보의 하루에서 맛과 영양, 건강까지 챙겨주세요!

언양점 ☎ 052) 264-6627



Bodhisattva
보디사트바

(재)정토사관자재회
http://jungtoh.com